

### 광주시 계림초 통학로 디자인 개선

도시재개발·인구 증가 등으로 학생수 급증

광주시가 도시 재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학생수가 급증한 구 도심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해 디자인 개선작업에 나선다.

광주시는 7일 '국비, 시비 등 모두 4억원을 투입해 최근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계림초 주변 어린이 통학로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되게 됐다.

1940년대 개교한 계림초교는 최근 도시재개발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속속 들어서면서 학군 내 인구가 3만여 명에 달하고 학생수가

700명에 육박, 학급과밀화가 진행되면서 통학로 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광주시와 동구, 광주디자인진흥원은 학교와 학생,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위험 요소, 등하교 현황과 통학로 안전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연말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정·후문, 학교 앞 교차로 등 통학로 주변 시각 단절구간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개선, 결절지 개선, 교통약자 위한 단차 제거 등 다양한 시설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범 기자

### 초·중학생 '찾아가는 드론축구 교실'

북구 8개 초등·중학생 260여 명 대상 운영

광주시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초등·중학교 8곳, 학생 2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축구 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드론축구 교실은 드론 레저 문화를 확산하고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드론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9번에 걸쳐 진행되며 드론의 기본원리와 법규를 배우는 기초이론, 장애물을 통과하는 비행실습, 5대5 드론축구 모의 경기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북구는 그동안 드론 무료 체험교실, 드론공원 및 드론실기시험



장을 운영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받는 등 드론문화 확산에 주력해왔다. 향후 인공지능·드론 융복합페스티벌을 개최해 인공지능 거점 도시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권형안 기자

### 동구 우기 대비 소화천 정비 '박차'

동산 소화천 정비 이달 내 완료...재해 예방선제 대응

동구는 여름철 우기 대비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화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동산 소화천으로 해당 하천은 폭이 좁고 석축 보수와 하천 바닥에 대한 준설 공사가 한동안 이뤄지지 않아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제방 통수 능력 부족으로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동구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 전 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30%

로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단계적으로 관내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해 하천 인근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력 동구청장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의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무료급식소 따뜻한 한 끼 2년 여만 재개

### '코로나19 일상회복 시작' 300여 인분 무료 점심 봉사자들 도움 속 독거노인·노숙인 따뜻한 한 끼

"그동안 대중 혼자서 끼니 때웠는데 오랜만에 밥 먹으러 오니 마음이 좋소"

7일 오전 광주 남구 사동 분도외안나개미꽃동산 무료급식소에서

2년 4개월 만에 활짝 문을 연 무료급식소에서는 독거노인·기초수급자·장애인·노숙인들을 위한 300여 인분의 따뜻한 밥 준비가 한창이었다.

급식소 운영 30분 전이었지만, 현관 앞에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무리 지어 대기줄을 섰다. 먹음직스러운 밥 냄새가 현관 밖까지 솔솔 풍겼다. 대기자들은 "사립 냄새도, 밥 냄새도 좋네"라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 봉사자는 "어르신, 하나도 안 변했네"라며 간만에 급식소를 찾은 노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았다.

급식소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총출력 방역 수칙 안내도 잊지 않았다.

봉사자들은 입장에 앞서 현관에서 대기자들에게 백신 3차 접종 증명서



7일 오전 광주 남구 사동 분도외안나개미꽃동산 무료급식소에서 장기간 중단됐던 무료 급식 봉사가 재개되고 있다.

제출과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깜빡한 일부 노인들은 "어쩌나..."하면서 밥을 동동 굴렀다. 봉사자들은 먼 길을 찾아온 노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머

니, 내일은 꼭 챙겨오셔야 해요"라며 집중서 지참을 당부한 뒤 급식소로 안내했다. 내부에선 구성진 트로트 가락과 노인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김용범 기자

###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오늘부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의무화

화재 위험에 취약한 방탈출 카페와 키즈 카페, 만화 카페 등 3개 업종이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광주시소방안전본부 7일 밝혔다.

이번에 편입된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방식이지만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으로는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 업종 모두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면서 8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남수 방호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기 기자

### "화장실 불법촬영 꼼짝마"... 서구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40여 명 구성...오는 20일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서구가 주민주도의 정기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달 26일 쌍학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40여 명의 여성안심보안관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의 협조로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사례, 불법카메라 설치 및 비상벨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 여성안심보안관은 오는 20일 발대식을 갖고 60여 개소의 서구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서 및 경찰서에 인계, 이상이 없을 경우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입구에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이달호 기자

봉사자들은 간만에 방문한 노인들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대중가요를 열창했다. 오전 11시 정각 뽕간·파란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의 손이 분주했다. 봉사자들은 배식부터 잔반 처리까지 도우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됐다.

출로 사는 김모(82)씨는 "몇 십 년간 점심을 해결하던 곳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곤란했다"며 "그동안 혼자 라면으로 대중 끼니를 해결했는데, 간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급식소를 찾은 박모(63·여)씨는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안부를 주고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난다"고 활짝 웃었다.

사회복지법인 분도외안나개미꽃동산 무료급식소 김광업 총괄사무국장(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보조급과 매달 후원을 받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광산구 "서두르세요"

광산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이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광산구 소재지의 농지 및 임야다.

신청인은 광산구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